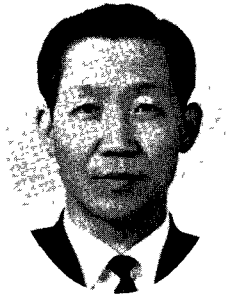


내 꿈을 養鷄에 심고

養鷄協會는 나의 伴侶者



오 봉 국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수)

양계협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회고담을 쓰게 되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드시 지금의 양계업계의 발전상과 15년전의 양계업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50년대 양계는 농가부업이나 경업양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겸업양계가의 사육규모라 해도 평균 300~500수 정도이고 1,000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국을 통하여 열손가락도 셀수 없을 정도 였다. 당시의 사료배합은 곡류와 밀기울중심의 자가배합사료로서 가스화영양분총량(T. D. N)과 조단백질 함량을 기초로 사료배합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양계업이 짧은 기간에 이와같이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된것은 그간 여러 차례의 난가파동과 사료파동 등 수많은 파란곡절로 엮어진 쓰라린 양계산업의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땀어린 인내와 용기로서 극복하여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양계인들이 일찌기 “양계협회”와 같은 모임체를 결성하여 미약한 힘을 집결시키고

서로의 슬기를 모아 오늘의 협회로 육성시켜 온것이 그 밑거름이 되어 양계발전을 가속화 시킨것으로 생각 된다.

협회 창립당시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연을 쓰려고 하니 기억이 희미한 사실도 있어 혹시 필자의 독선적인 판단이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1. 협회 창립의 태동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추억을 가진다. 과거의 일을 회상할때 즐거운 추억이 있을수도 있고 심히 괴로운 추억도 있다 필자는 과거 가금협회 창립당시를 생각하면 참으로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 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협회 창립을 위하여 당시 참여 하였던 분들은 누구나 같은 회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너무도 순수했고 진심으로 서로가 원했던 사업이 었기에 비록 6.25 동란으로 가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직장을 잃고, 춥고 고달픈 양계를 하고 있었으나 협회 창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진하여 회사했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으리라고 생각 된다.

(1) 장안동 양계국민학교

1962년 2월초로 기억된다 서울 장안동에서 한양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던 김현배선생님이 수원으로 나의 연구실로 찾아와 서울 장안동근교에서 양계가 15명이 양계친목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양계기술과 지식을 얻고자 하니 월 1 회씩 나와서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충북대학 축산과에 계시던 이재근선배님(현재 고려대학 축산과 교수로 재직중)의 소개로 나를 찾아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나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저를 소개하여 주신 이교수님의 입장과 부탁하러오신 김선생님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되어 즉석에서 응낙하였다

나는 그당시 미국 미네소타대학 가금학과에서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인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양계담당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때였으며 새로운 양계지식과 기술을 보급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養鷄」라는 책을 써서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을 때였다.

1962년 3월에 드디어 강습회날이왔다. 당시만 해도 성동구 장안동까지 가자면 수원에서 3시간 앞두고 출발하여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 도착된 곳이 장안국민학교였다. 3월초의 방과후 교실에는 희미한 전등불이 켜있고 저녁의 쌀쌀한 밤기온에 불기도 없는 마루바닥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앉은 조그마한 책상과 걸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너무나 어른스러운 학생들이였다. 장안동 양계친목회회장으로 계시는 분은 이기능씨였으며 당시 60세의 전직 국민학교 교장이었다. 이선생님을 급장으로 모두 40세 전후의 “양계국민학교” 학생들이 어선지 옛날 개화기때의 보통학교를 연상 시켰다. 강의의 약속시간은 2시간이었으나 보통 3시간은 계속하였으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듣는사람은 혼연 일체가 되어 시간 가는줄 모르고 강의도 하고 어떠한 양계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였다.

강의내용은 주로 새로운 양계이론과 기술이었다. 순종만이 多産제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교잡종인 일대잡종이 더 건강하고 多産한다는 사실, 가금 영양에 있어서 TDN 보다는 생산에너지, 그리고 단백질 보다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더 중요하며, 닭에 있어서도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므로써 :

첫째는 채란계의 계중선택 방법이 개선되어 “햄프혼” “록크혼”등 F₁ 잡종이 등장 하게 되었으며

둘째는 자가배합사료를 “엔알씨”(NRC) 사양표준에 따라 배합하게 되므로써 사료효율을 높이고 특히 겨울과 봄철 비타민A 부족으로 생기는 영양성 호흡기병을 예방할 수가 있었다.

셋째는 부리자르기와 벧자르기등 병아리의 특수관리가 보급되게 되었다.

장안동 양계강습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수강자수는 늘어갔고 그해 여름에는 국민학교 교실이 팽찰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 당시 서울과 경기일원에는 양계친목회가 여럿 있었으나 상호 유대가 없었으며 친목회는 지역 별로 구성되어 양계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양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얻고자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단순한 친목회로 출발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초생추의 공동구입, 사료의 공동배합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나 지역별 친목회간에는 횡적으로 유기적인 연락은 없었다, 그러나 장안동 월계양계강습회에는 장안동 양계가 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원 나아가서는 충남 홍성, 광천지역 양계가까지 합세하여 지역서로 한자리에 모여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되어 양계협회의 태동이 시작 되었다. 물론 나는 이 당시 강사료를 받고자 강습회에 출강한 것도 아니며 강사로 대신 거마비라하여 실교통비정도 받은 기억이 난다. 그해 강연회가 끝나고 유지일동이 나를 초대해 주어 을지로 4가에 있는 “又來尾”불고기집에서 푸짐한 술대접을 받고 그당시 최고급 신사양복 한벌을 선사한

은 일이 있어 그후부터 강습회에는 멋진 신사복을 입고 연단에 서곤 하였다

(2) 산학협동의 산실

장안동 양계강습회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양계인의 광장으로 변하여 고대 희랍의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는 “아크로 포리스” 광장과같이 양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교류의 토론의 광장이 되었다. 여기에는 순수 양계인만의 모임이 아니고 학계와 양계관련 업체에서도 참가하기 시작 하였다.

각지에서 모인 양계인사들중 지역별 대표 또는 유지들이 모여 앞으로 지역별 친목회만을 가질것이 아니라 양계인 전체가 모여 양계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 양계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양계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게 된것이 협회창립의 태동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58년10월에 각대학에서 가금학을 전공하는 학자와 축산시험장, 도종축장 연구관들이 모여“가금연구회”를 조직하여 1~2 개월마다 연구회를 갖고 가금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검토 양계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갖는 모임체가 있었다. 회원은 18명이었으며 당시 회장은 연장자이신 李在根 교수가 되었고 간사에 金東坤부장장 이고 李升圭, 吳世正, 崔昌海, 李施衡, 李相喆, 池高夏, 延時仲, 吳鳳國 외 여러분이 그의 멤버였다

내가 장안동 양계강습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학계와 업계는 서로가 같은 배에 탄 양계여객선의 선원으로서 또한 공동운명체로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체감속에서 공동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의 교류가 시작 되었다. 여기에 그 한토막의 기록이 있어서 게재하고자 한다.

炎夏之節에 尊体萬康하심을 仰祝하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8월3일 서울을 중심

으로한 養鷄業者 有志代表 몇분과 小生이 우연히 자리를 같이할 機會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論議된 事項은 韓國畜産業中 養鷄業者가 數的으로 보아 가장 많이 있는데 業界 相互間에 有機的連絡이 없으므로해서 經營面이나 技術面에서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形便이니 相互 養鷄技術을 交流하고 親睦을 圖謀하는 뜻에서 韓國家禽研究會와 業者들 사이에 어떠한 모임休를 가지자는 公論이 나와 于先 이에 대한 準備會을 갖이자는데 會總를 보고 다음과 같이 그 時日을 定하였아오니 公私多忙中 많이 參席하셔서 좋은 말씀과 意見을 發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記

- 1. 時日：8월 25일(土) 오후 2시
- 1. 場所：서울特別市 畜産協同組合
(住所 서울特別市 忠武路5街51番地
⑤ 1236)

1962年 8월 18日

水原農科大學 吳 鳳 國

협회창립 준비회의 취지문에서와 같이 양계 친목회중심의 각지역 대표 그리고 부화, 종계업자, 기존 양계업계 유지들이 1962년 8월25일 당시 서울 충무로 5가에 있던 축산협동조합에서 축협조합장으로 계시던 이창열 선생을 비롯하여 학계와 업계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준비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것이 바로 “산학협동”이며 우리 양계인은 일찌기 업계와 학계가 총화단결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후 한달후인 1962년 9월28일에는 서울시 축협회의실에서 한국가금협회 발기인회를 가졌으며 그해 12월5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정동 소재 서울우유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약 120여명의 업계와 학계인사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 우리는 대학인을 가리켜 상아탑 속의 인간이다 하였고 학자나 연구가는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며 그 연구가 업계발전과는 무

관한것으로 오직 연구를 위한 연구로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자와 학자간에는 유기적인 연결어 맺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1955년도에 미국에 유학가서 보고 느낀것은 실용주의 사상과 대학인의 산학협동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즉 대학은 그나라 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하며 그 사명은 하고있는 연구가 곧 그사회 발전을 위한것이며, 업체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대학을 활용하고 연구를 위한 각종 연구비와 시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대학의 3대기능은 첫째 교수 둘째 연구 셋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산업계에 기술제공과 보급을 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 미국유학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가금학 전공분야의 지식과 학리뿐만이 아니라 그나라 그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배웠다 1957년에 귀국하여

나는 내나라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내가 할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일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양계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문익점(文益漸)선생의 면화씨 도입과같이 닭종개량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있던 미네소타대학에서 육종개발한 근접계통 닭 "백색레구혼종" "뉴올렘프셔종" "백색프리머스룩종"과 백색과 청동생색 7면조종난 1통에 360개들이 한상자씩 1,800개를 갖고 와서 축산 시험장과 공동으로 일대잡종이용시험에 착수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교잡육종의 출발이며 레구혼계통간 교잡종이 개발되었다. 또한편으로는 가금연구회와 양계강습회등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나라 양계업계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같이 가금협회는 업계와 학계의 산업협동의 산실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2. 가금협회의 출범

가금협회는 비교적 순조로히 탄생되어 초대 회장에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장으로 계시던 축산계의 원로 윤상원선생님 을

모시고 부회장에 신춘부회장의 강금노사장과 영육농장의 김영희사장 그리고 상무이사에 한협농장의 박도현사장이 되었다.

당시의 가금협회 임원을 보면 회장단 3명과 이사 감사를 합하여 15명이였으며 이중 학계출신이 6명, 업계에서 12명이 선출된것으로 보아 학계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산학협동의 기반위에서 출범이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같이 하여 협회는 출범하였으나 당장 협회를 운영하자면 많은 적던 간에 협회운영경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협회 창립을 보기까지는 당시 장안동 양계친목회를 이끌어온 김현배, 이기능선생의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었으며 협회 창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임원중 업계유지들이적지 않은 경비를 부담하여 주었다. 당시 업계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강금노, 김영희, 박도현이필용. 이기능, 김현배, 김안제, 안태석, 김영석, 김구봉, 윤경중씨등이다.

(1) 육추일지와 모금운동

협회 초창기는 6,25동란으로 쫓겨나서 변한가산을 복구하는 시기여서 우리양계가는 영세하였으며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지않게 부담하여 주었다. 그러나 협회운영과 사업을 하자면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협회운영경비 조달방법으로 생각해 낸것이"육추일지"(育推日誌)발간사업이었다.

즉 육추일지 발간사업의 목적은 협회에서 육추일지를 발간하여 각 부회장과 종계장에서는 이것을 사주고 대신 부회장과 종계장에서는 병아리를 사가는 일반양계가에게 병아리를 덤으로 몇마리씩 주는 대신 육추일지를 주어 기술보급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자는 김현배선생이였으며 내가 집필을 하면 각 이사들은 출선하여 사주기로 결정 하였다. 얼마후 육추일지 원고 보따리를 싸들고 협회를 갔더

니 인쇄비가 없다는 것이다. 궁리끝에 육추일지에 광고란을 만들고 광고찬조금으로 인쇄를 하자라는 것이다. 때는 1963년 정초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우선 이사들끼리 몇패로 나누어 주로 제약업체와 사료업체를 방문하기로 하고 유한양행에는 김영희선생이 인솔하는 팀이 떠나고 서울약품에는 나와 오세정선생등이 합세하고 대한사료(지금은 대한신약)에는 박도현 김현배선생팀이 그리고 수도미생물 제일사료 경인총판의 삼양상회에는 이필용, 이재근선생팀등으로 나누어 모금운동에 나섰다.

당시에는 빠른행이 여의치 못하여 전차를 타고 다녔으며 한군데가서 모금하자면 2~3시간씩 설득하고 물고 늘어져도 광고찬조금이 나올까 말까 할 때였다. 저녁이 되면 모금운동원들이 약속한 시내 다방이나 선술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어떤 팀은 개가를 올리는 가하면 어떤 팀은 씩씩할 얼굴로 돌아왔다. 2~3일간 계속하여 모금한 돈이 우선 인쇄비 계약금과 경비의 일부가 충당할 정도가 되었다.

인쇄는 이 당시 인쇄기술이 가장 좋다는 선명인쇄소에 맡기기로 하고 원고를 갖다 주었다. 육추일지 표지와 광고도안 등은 당시 농대 축산과 재학생으로 내 연구실에 있던 김영욱씨(현 퓨리나 코리아 지역판매부장)가 수고를 하였고 인쇄소에서 교정과 출판에 따르는 수고는 당시 동신총축장에 근무하면서 나와 가끔협회 사무를 보시던 임병규씨였다.

육추일지는 그로부터 1개월만에 출판이 되었고 일지의 판매대전은 협회운영비로 전입되어 초창기 협회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2) 협회인가 재심청구와 무교동 대포집.

무교동 대포집하면 당시 협회운영에 참가했던 분들은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많다. 육추일지 모금운동을 비롯하여 농림부에 제출한 가끔협회 설립허가 신청서가 협회 예산액이 너무 적고 당시 김원복선생께서 경영하시던 “한국가금연구소” 설립취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어왔다. 설립허가신청을 얻기위하여 제경비조로 가난한 업자들이 호주머니돈을 털어 모은것이 10만원이었는데 그것으로 설립인가를 내기위해 제반서류를 꾸미고 교통비 기타경비조로 그방면에 경험있는 분에게 청부를 주었던 것인 데서류는 반려가 되고 거출한 경비는 다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협회로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설립허가신청 재심요청을 하게되었다. 이때 임원들은 결국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되고 협회에서 설립허가 신청을 직접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나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을 맡겼고 다른분들은 경비를 객출하기로 하였다.

당시 나의 연구실에서 일하고있던 柳炳賢군(현재 호주 과학기술원 가축육종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음)이 나를도와 서류를 꾸미는데 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보따리로 한짐이 될 정도로 많았다. 지금 옛날에 구비하였던 서류의 종류를 보니 11가지나 된다. 이 서류보따리를 들고 농림부로 드나들며 서류의 보완 작업과 경비조달을 위하여 여관을 정해놓고 합숙을 해가며 일을 추진하였는데 이모임에 참가한 분은 김현배, 박도현, 김영희, 이재근, 오봉국, 차두홍, 강호년씨등 여러분이 있으며 무슨 정성이 뻗쳐서 그러했는지는 알수없으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낮에는 각자 맡은 모금운동에 나섰고 밤에는 모금상황의 보고와 나는 농림부에 가서생긴 일을 보고하고 내일 할일을 서로 의논하며 근 일주일일을 보냈다.

무교동 대포집은 우리가 정한 여관에서 가까운 술집이었는데 없는 사람이 술값싸고 안주 좋은 집을 찾다보니 집은 허술하고 비좁은 방이었으나 빈대떡과 조기매운탕은 일품이었으며 正2月的 추운날 모금과 서류를 꾸미다보면 일이 잘되서 기분좋아 한잔 어떤 때는 일이 잘되지 않아 기분풀이로 한잔! 그당시 소주는 귀하고 약주가 맛 좋고 값이 싸서 약주를 잘 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모금도 목표달성이 됐고 농림부 서류도 정식접수가 되어 합숙의 끝날이 왔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수 없으나 통금시간이 지나 발이 묶이게 되자 한방에서 6명이 자게 되었는데 서로 아랫목 따뜻한 곳을 차지려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본 일도 있다.

무교동 대포집은 작부가없는 술집으로 실비집이었으며 집주인 여자가 깔끔하고 요리솜씨가 좋고 세련된 인테리였다. 그래서인지 돈 없고 팀출출모르는 우리들이 가면 협회일로고 생을 한다는것을 이해하여서인지 「써어비스」가 좋았다. 이때의 경비는 각자가 얼마씩 부담은 하였으나 동식종축장의 박도현사장의 도움이 컸으며 현 한일사로 차두홍사장도 격려의 주연을 빼놓아 주곤 하였다.

이때 제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재심 요청서」에 의하여 1964년 12월 「農畜政 1161. 12-1892호」에의하여 정식으로 한국가금 협회 설립허가」가 되었으며 당시 농림장관은 차균희 씨였고 축산국장은 김영환선생이었다

3. 「시작이 반이다」—월간 양계 발간

1968년12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제 4 대 회장에 본인을 부회장에 강금노, 박도현 사장을 선출하고 협회를 인계하여주었다.

당시 협회는 전임회장과 이사들이 차기 회장단을 지명선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인계를 받고보니 전임회장단과 이사진 그리고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결로 없는 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였고 협회 운영도 본궤도에 올라 명실공히 협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양계협회 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운영비의 10%도 되지않는다. 거의가 협회를 맡은 임원들의 창의와 활동 그리고 일부회원의 희생적인 투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협회를 맡고보니 할일은 많으나 예산의 뒷받침은 거의없는 상태로서 전임 임직원들의노고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월례강습회”는 서울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비교적 서울중심의 회원은 양계기술과 시장정보에 민첩하게 대응

할수가 있었으나 지방에 있는 회원이나 양계인은 여름철 1년에 한번있는 지방순회강습회 때 기술강습을 받는 정도이어서 양계인들중에는 월례강습회도 좋으나 양계잡지를 발간하여 전국에 있는 양계인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양계 시장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정확히 전달하므로서 지방과 중앙과의 격차를 좁히고 양계경영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워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양계업계에는 부화협회와 가금협회의 두 단체가 있었으나 필요성은 다같이 느끼면서도 잡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재원마련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잡지발간에 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신통한 묘안이 없었다. 결국 비장(秘藏)의 수법을 다시한번 써볼수 밖에 없다. 그비장의 수법이란 “육추일지”발간에서 배운 광고찬조로 업체에 대하여는 찬조금에 해당되는 수량의 잡지를주면 찬조업체에서는 물건을 사가는 양계가에게 무료로 잡지를 배부한다면 양계가는 월간양계를되고 보급도 빨리 될것으로 생각되어 협회로서는 양계가를 위하여 일거양득(一舉兩得)인 셈이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이 成事가 될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을 불허하였다. 즉 일부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육추일지”는 년 1~2회정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매월 광고비를 내라면 과연 업체에서 호응할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일은 시작이 쑤이다」라는 속담이있듯이 시작해 보기로하고 우선 잡지발간에 필요한 경비로서 3개월간의 발간비용 100만원의 목표액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먼저 협회이사로서 총계와 부화업을하는 이사로부터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3개월의 광고료를 청탁드렸으나 1968~1969년도는 불행히도 생산과잉으로 양계불황이 닥쳐 돈을 선뜻 낼수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협회로서 잡지발간의 큰「스폰서」는 역시 돈이 많은 제약업체와 사료업체였다. 회장단과

이사진이 각자 통할수 있는 상기 두종류의 업체를 방문하여 광고찬조를 받기도하고 한달동안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어떤 회사에서는 책을 가지고와야 돈을주겠다 또는 몇 달이나 지속할것인지 의문이 간다 돈없이 무슨 사업이냐는 등 말도 많았으나 양계협회가 그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오고 내부적으로 단결이된 충실한 협회라고 하는데는 모두 동감이어서 가끔협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잡지발간이 공수표가 아니라는점은 인정하여 주었다 오세정교수와 나는 수원농대나 전대 졸업생이 가있고 그전부터 인연이 있는 큰 제약업체와 사료업체를 찾아다녔다.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의 개인적 친분이나 체면때문에 광고청탁을 받아주었고 광고주로 가장 청약액수가 큰 제일사료광고를 얻기위하여 나는 밤차로 호남선열차에 몸을싣고 군산까지 방문한 일도있다

1969년 9월에 제1차 편집위원회를 열고 원고청탁과 편집에 들어갔다 그동안모금된 청약액수는 26개 會社로부터 약 2개월분의 인쇄비가 되었다. 초대 편집위원장에 농대 한인규선생이 선출되고 편집내용은 시사성있고 알찬 내용의 편집을 하느라고 고생하였다. 물론 원고료는 무료로 봉사하기로하고 돈이 생기면 형편에 따라 그때가서 원고료조로 얼마를 지불하기로하고 집필을 청탁하였다. 1967년 11월 드디어 "월간 양계"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제호는 서울대 농대에 같이 근무하던 尹錫鳳 박사가 써주었다.

이때 "월간 양계"편집 책임을 맡아본 김영옥씨는 두달간 집에도 못가고 밤낮을 사무실 책상에서 침식을 해가면서 편집에서 인쇄 교정 광고"컷"정리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한 보람이 있어 창간호가 오랜 진통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당시 편집부장 김영옥씨가 엮은 「편집후기」의 한토막을 소개한다.

편집후기(1969. 11월호) —창간호에서—

「산모의 출산고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은 들은 풍월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하나의 생명체

를 빛을 보이게 하기까지의 진동이 이노룩 심할 줄이야……

허나 이 괴로움이 석류알같이 알알이 익어 가겠지」

끝으로 「월간 양계」를 탄생시키기 까지 노고를 같이 하여주신 당시의 부회장단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돌봐주시며 고생을 같이한 최창해 상무이사님 편집위원장 한인규박사, 항상 저를 격려해주신 김현배선생님과 물심양면으로 찬조해주신 업계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편집후기(1969. 12월호)

◇…잡지를 만들면서부터 노상 눈알이 빨갛게 토끼눈처럼 충혈이 되어 있고 항상 배안에 빈 독을찬 것처럼 허덕대고 있는 미스터. 김을 볼 때마다 원 저렇게 힘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데카론·C」안약을 사다주고 가끔 밤참용으로 옥수수, 오징어도 사다 취 보지만 여전히 「미스터. 김」의 눈은 빨갛고 배안엔 밀빠진 독이 하나 들어있나 보다…◇(차)

맺 는 말

나의 인생은 20대에 대학을 졸업하면서「양계」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가금학(家禽學)을 연구하며 교수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도 양계와 더불어 살아갈 작정이다. 누가 나를보고 말하듯이 내이름이 吳鳳國 이기때문에 새봉자(鳳)는 가금을 말하며 나라국(國)은 한국을 말하니 한국의 가금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축산학을 공부하였다면 그 많은 분야중에서도 왜? "가금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아마도 내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다.

더우기 양계협회와 나는 나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부터 인연(因緣)이 맺어져 지금까지 지내왔으니 협회의 역사가 곧 나의 이력서이기도하다.

만일에 어떤사람이 「양계 협회」의 주인공은

누구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우리나라 양계인의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양계인(養鷄人)이란 닭(家禽)을 기르는 사람을 말하며 닭을 집에서 기르는 간에, 또한 기르는 목적이 영리적이든 연구적이든 취미적이든 간에 닭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우리 「양계협회」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회의 통념상(通念上) 협의(狹義)의 양계협회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업자들의 모임체로 규정 지을 수 있다.)

협의(狹義)의 개념에서 협회를 운영한다면 양계조합이 더 생산적이며 효율적이 될 것이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분야는 자연히 분리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채란, 부로이라, 부화 감별사, 종계협회등으로 따로 따로 협회를 구성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국부적인 힘의 결속은 강해지거나 전체양계부문은 힘의분산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자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여하간 "양계협회"는 양계인의 모임체이고 주체는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가 발전하려면 양계업계 각분야가 이속에서 제자기 분야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때 협회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화합과 이해없이는 이룩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산업이나 한 가정의 성장과정과 발전 과정을 보면 한 가정(家庭)이 가난하고 미약할 때에는 서로 잘 단합(團合)하고 화합되나 차차로 부유(當有)해 짐에 따라 화목을 잃고 이해를 상실하여 갈등(葛藤)을 초래하는 경우를 본다. 여기에는 성장과정에 어떤 윤리(倫理)나 가치관(價値觀)이 부여 되지 않은 때 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된 성장을 얻으려면 도덕(道德)과 윤리(倫理) 밑에서 구심점(求心點)을 찾아야 하고 대화(對話)와 이해(理解)로서 진진 하지 않으면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라 분야별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상반되고 같은 업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별로 이해(利害)가 다를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 이익만을 찾고자 한다면 전체의 균형에 금이가고 질서는 위협받게 되므로써 개인의 발전이나 이익으로 인하여 전체발전이 저해를 받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레이몽 아롱"교수는 말하기를 「갈등(葛藤)은 개방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갈등없는 인간이나 사회는 발전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을 대화와 인내, 그리고 이해로서 화합될때 비로소 안정된 성장을 기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경영규모나 사업상으로 보아 크게 발전된것은 사실이나 축산업중중 사회적으로 또는 기업면으로 보아서는 낙농 기업목장 사료 가공업체 등 타분야에 비하여 힘이 약하고 사회적지위 또한 높지못하다. 우리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지속화 시키지 위하여는 미약한 우리의 힘을 총화단결 하는 길 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믿기에 우리 양계인은 소를 버리고 大를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양계입국을 위해 노력합시다.

〈오봉국 교수 학력및 경력〉

- 1923년 5 월28일생
1949. 7. 1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문부 농학과 졸업
1952. 3. 3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1956. 3. 28. 서울대학교 대학원(농학석사)
1957. 12. 16.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엠·에스)
1968. 9. 22. 호주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72. 1. 31. 호주에서 개최된 국제가금산업 세미나 참석(한국대표)
1974. 8. 11. 미국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가금학회참석(한국대표)

- 1969. 1. 1. 사단법인 한국 가금협회 회장
- 1969. 4. 1.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연구 지도위원
- 1970. 4. 1. 경기도 지역개발 평가교수단 위원
- 1970. 10. 1. 세계가금학회 이사
- 1972. 2. 1.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 1972. 10. 1. 한국 축산학회 회장
- 1973. 4. 1. 과학기술처 조사연구 개발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 1977. 2. 10. 세계식량기구주최 가축개량회의 (한국대표)
- 1952. 6. 3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교
- 1957. 4.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임강사
- 1959. 7. 3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교수
- 1962. 9. 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교수
- 1969. 8.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 1968. 8. 2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장
- 1969. 2. 2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무과장
- 1977. 2. 2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장
- 1974. 11. 1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물 사육장장
- 1968. 4. 1. 세계식량기구 한국협회 축산분과 전문위원회 위원

팔달

가축병원
동물약품상사

국내외 유명 수의약품 완비
친절한 환축(患畜)상담
주문에 신속한 공급

고단위 수용성 종합비타민

비 타 골 드

수의사 김재성

팔달동물약품상사
대구시 서구 원대동 3가 1343번지
(원대동 오거리)

전화 : (23)6177, 6777

양계인의 번영을 위한 전문지 월간 양계

월간양계는 양계인이 필요한 모든것을 갖추고자 노력해온 여러분의 잡지입니다 양계에 관해 무엇을 더 아셔야겠습니까? 월간양계는 항상 독자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양계구독안내

월간양계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분 5,000원, 반년분 3,000원을 대체구좌 519272로 송금하시거나 소액환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누구나 구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 협회 편집부